

중국 근·현대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金德三**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중국 근현대 대학의 변화
3. 중국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 (1) 전통사상
 - (2) 외래사상
 - (3) 사회주의사상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지식인은 사회사상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지식인은 대학사회와 대학에서 배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사회사상의 발원지는 대학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대학은 국가정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 그런 국가정책은 대개 정치사상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주로 지식인 계층에서 전파된 것이 지식에서 행동으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3-B00024).

** 大眞大學校 教養學部 教授

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를 이끈다. 결국 이러한 행위 주체 대다수가 대학과 관련을 맺고 활동하기 때문에 대학과 대학사회를 움직이는 대학의 사상적 기초는 중요하다.

대학의 사상적 기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은 대학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다른 조직과 어떻게 다르고,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이상적 모델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렇다면 대학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도 인류의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을 대표해야지, 특정 조직이나 사상 또는 학설 등을 대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대학이 인류의 보편적 지식을 전수하고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인류 문명을 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난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인류의 보편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보편적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합일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냉전시기에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이데올로기의 그늘 속에서 이러한 합의는 더욱 어려웠고, 이러한 난제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치판단에 대한 논의보다 사실판단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중국 근·현대 대학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기초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 대학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준 철학, 교육철학, 정치철학, 사회사상, 대학이념, 대학정신 등을 아울러 '사상적 기초'라고 명명하고, 중국 대학의 변화 속에 변화의 動因으로 작용한 사상적 기초를 알아보았다. 즉, 중국 대학의 역사적 사건에서 출발하여, 그 사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상적 배경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중국 대학을 구성하고 변화시킨 사상적 기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사상은 어떻게 중국 대학에 계승되었고, 외래사상은 어떻게 중국 대학의 변화를 유도했으며, 사회주의사상은 중국 대학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켰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고, 중국 대학의 변화 기제를 세 가지 사상 축 속에 파악하여 중국 대학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중국 근·현대 대학의 변화

중국은 20세기를 전후하여 국내·외 질서가 붕괴되면서, 봉건제도-민주, 전통-근대, 토착-외래, 중국식-서구식의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성장했다. 그리고 《中華人民共和國 50年史》에서는 중국의 근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다섯 가지 요소로서 근대화, 전통, 국제적 충격, 혁명, 내셔널리즘을 지적했다.¹⁾ 중국 사회가 근대화, 전통, 국제적 충격, 혁명 등의 영향을 받고, 봉건제도와 민주, 전통과 근대, 토착과 외래, 중국식과 서구식의 이항대립 속에서 변화한 것처럼, 중국 대학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만의 사상적 기초를 형성하며 성장하였다. 이에 먼저, 중국 대학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가운데 의미가 있는 사건을 여섯 가지로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動因으로서의 사상적 기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의 설립이다. 중국 대학은 19세기 중반에 세워진 교회대학을 필두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之江大學의 전신으로 1845년에 세워진 崇信學校, 聖約翰大學의 전신으로 1879년에 세워진 聖約翰書院, 金陵大學의 전신으로 1888년에 세워진 匯文書院, 1888년의 嶺南大學 등이 있다. 이들은 설립 당시부터 1952년에 시행된 院係조정 직전까지 중국 내에서는 우수한 대학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교회대학의 존재와 공로가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20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인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대학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시행된 사립대학과 교회대학의 해체에 대한 정당성, 국유화에 대한 책임, 해결방안에 대한 부담, 서구 제국주의와 그 결과물로서의 교회대학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거론하는 최초의 대학은 중국 최초의 국립대학이지, 중국 최초의 대학은 아니다. 중국 대학의

1) 天兒慧 저, 임상범 역,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서울: 일조각, 2003), 15쪽.

발전사에서 대학의 설립은 하나의 커다란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된 사상적 동인을 살펴보면, 대학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육기관과 이를 가지적으로 중국 사회에 실현시킨 교회대학은 외래사상과 깊이 관련된다. 외래사상이 주로 서구 열강의 논리와 기독교적 사상으로 대표되지만, 중국 사회는 보다 다양한 외래사상을 대학을 통해 전파 받았다. 외래사상은 중국 사회의 전통사상과 전통문화와의 대립을 촉발하였고 특히 이러한 영향 속에 오랜 구습을 지탱하였던 봉건사상이 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서구의 교육사상 및 교육법령이 정비되면서 현대 대학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1912년에 중화민국이 건국되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까지 중국의 대학은 수천 년 내려오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였다. 封建禮教를 타파하고, 부녀자와 여성교육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교육 평등권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蔡元培, 胡適, 竺可楨, 梅貽琦, 張伯苓, 陶行知 같은 소신 있는 교육가를 배출하고, Johann Friedrich Herbart, Maria Montessori, John. Dewy, Paul. Monroe 등 서구의 교육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평민교육사상, 국가주의 교육사상, 교육독립 사상, 민주주의 교육사상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사상이 등장하였다. 특히 1927년에 남경 국민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학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는 南京高等師範學校와 清華大 등이 발전하였고, 1930대와 1940년대에는 北平大, 清華大, 南開大가 일본의 침략을 피해 연합해서 세운 重慶의 西南聯合大學과 浙江大學이 발전하였다. 민국시기의 중국 대학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다양한 시도와 실험으로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20년대의 북경대학, 30년대의 청화대학, 40년대의 서남연합대학은 바로 중국인들의 정신적 고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²⁾ 이 시기에는 대학교육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1912년에 중화민국이 건국된 뒤, 대학과 관련된 낡은 사상과 답습을 버리고 새로운 법규와 법령을 제정하여 현대 대학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2) 潘懋元 主編, 《中國高等教育百年》(中國: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5), 350쪽.

이 기간 동안 공포한 교육법규와 법령은 1500여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1200여건은 1927년에서 1949년 사이에 제정되었다.³⁾ 이처럼民国 시기를 통해 중국 대학은 봉건사회의 틀을 넘어 현대 대학의 초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외래사상과 전통사상의 영향이 대학의 사상적 기초로 작용하였다.

셋째, 蔡元培를 중심으로 한 대학 개혁이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할 때, 蔡元培는 1917년 1월 4일 북경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대학 개혁을 실시하였다. 教育救國의 일념으로 서양에서 공부한 것을 중국에 적용한 蔡元培는 관리양성학교인 북경대를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으로 변화시키고, 대학에 '사상의 자유'와 많은 것을 겸하여 포용한다는 '兼容并包'의 학풍을 뿌리내렸다. 특히 自由討論, 自由結社, 사상의 자유, 학술의 자유, 자유교육 등으로 점철된 자유주의사상의 확대는 중국 대학과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蔡元培의 개혁은 중국 대학을 현대식 대학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를 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그후 이것은 1919년의 '5·4운동'으로 이어져 대학을 학문과 연구를 중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여기에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한 사상적 기초는 蔡元培가 독일 등에서 배우고 온 서구 자유주의와 과학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외래사상이다. 물론 이러한 외래사상은 중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봉건사상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전통사상에 대한 배격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나, 蔡元培 자신의 뿌리가 중국 전통사상 그 가운데에서도 유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유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도 蔡元培와 그가 이룬 대학의 개혁에 사상적 기초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蔡元培가 강조하여 말하였던, "대학이란 규모가 방대한 저작을 포괄하고, 여러 학파를 망라하는 전당이다 大學者, 囊括大典, 網羅衆家之學府也."란 말도 《中庸》에 나오는 "만물은 함께 기르지 서로 해치지 않는다. 도는 함께 가는 것이지 서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다. 萬物并育而不相害. 道并行而不相悖"와 통한다. 또한 蔡元培가 언급한 '兼容并包'의 학풍도 궁극적으로는 '和而不同'과 같은 유가 사상과 통한다.

3) 劉兆偉·趙偉, 《中國教育法制史》(中國: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25-26쪽.

넷째, 중국 공산당의 창당이다. 蔡元培가 북경대학을 개혁하면서 초빙한 陳獨秀와 李大釗 등은 마르크스주의를 중국 지식인 사회에 전파하였고, 1918년 11월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 연구회'를 북경대학에 설립하였다. 그 후,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공산당 창당 이후 공산당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미약했고, 1936년부터 1948년까지 진행되었던 延安시기의 대학 교육도 그 수준과 영향이 미미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의 교육 틀이 마련되고, 이것이 현재 중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사상적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공산당 창당을 전후하여 중국 대학과 관련된 사상적 요인으로는 외래사상의 수용, 특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이 있었다.

다섯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난 뒤 행하여진 소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대학 개혁이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정치·경제·사상·교육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진입을 실행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대학은 건국의 기초와 체제 정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뿐더러, 대학자신도 체제 정비의 대상이 되어 대학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1952년에 실시한 院係조정은 교회대학과 사립대학을 해체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대학의 관리가 국가 기관으로 옮겨져 중앙 집권형 고등교육체제가 수립되었다. 건국 이후의 대학 개혁은 이념적 성향이 짙은 정치권력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는 대학 발전에 긍정적 영향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 예를 들어, 1951년에 시행된 지식인에 대한 사상개조운동, 1952년의 충성노실운동 등이 있다. 또한 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지식인에 대한 숙청인 1955년의 숙청반혁명운동과 1963년의 사회주의 교육운동 등이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지식인 탄압과 대학 개혁의 부정적 사태는 '문화대혁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는 지식인들을 上山下鄉을 통해 歸農시키고, 반대로 대학에 군인, 노동자, 농민이 들어가 교수를 가르치거나 학교를 운영했고, 또는 이들이 학생이 되기도 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대학은 교육의 전문성

과 학술의 존엄성이 훼손되었다. 이념적 혹은 특정 정치권력에 의한 대학기능의 상실과 대학의 정치권력에 대한 종속화는 대학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국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건국 이후 진행된 일련의 대학변혁에는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사상의 변형,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전통사상의 영향이 있었다.

여섯째,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WTO가입, 북경 올림픽 및 상해 엑스포 개최 등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건을 통해, 중국의 사상적 중심축이 이념에서 경제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대학의 변화이다. 1978년에 실시한 개혁개방은 중국 대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것은 1992년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켰다. 대학에서는 1993년 이후 실시한 대학교육개혁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개혁을 통해 무상교육을 유상교육으로 전환하였고, 대학의 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정비하였으며, 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였다. 그리고 1999년 북경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江澤民이 제안한 985공정과 그 이후 발표된 211공정 등을 통해 중국 대학은 국내에서 국외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세계 명문 대학 건설을 목표로 무한 경쟁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중국은 상실된 대학의 권위와 기능을 회복하고, 대학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대학의 민영화와 대학의 경제 발전 등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대학을 중국내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와의 경쟁으로 유도하여 대학의 발전과 소통을 이끌었다. 이러한 대학의 변화에 외래사상, 전통사상, 사회주의사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대학변화의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사상적 기초를 살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내용	사상적 기초
1	중국 최초의 대학	교회대학과 중국 국립대학(경사대학당)	전통사상(봉건, 유가) 외래사상(기독교)
2	대학 관계법 제정	과거제도 폐지, 새로운 신분 상승의 대안	전통사상 외래사상(유럽 및 미국,

	1920년-1930년, 남경정부초기	남경고등사범학교, 청화대 등의 발전	일본 참고. 서구 선진문물의 능동적 수용)
	항일전쟁	1930·40년대 일본 침략 기간 重慶의 서남연합대학, 절강대학	
3	1917년에 실시한 蔡元培 주도의 북경대 개혁	자유, 과학, 민주에 대한 수용과 실천 1919년 5·4운동의 단초	전통사상 외래사상
4	1921년 공산당 창당과 그 이후의 공산당 활동	북경대의 마르크스연구회 초기 마르크스주의자 延安시기 대학교육	사회주의사상
5	1949년 건국과 毛澤東	院係조정 대학과 지식인 탄압	전통사상 사회주의사상
	1966-1976년 문화대혁명	대학과 지식인 비판	
6	1978년 이후의 개혁개방	등소평 이론 실용주의 사상	전통사상 외래사상 사회주의사상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따른 개혁개방의 심화 2001년 WTO가입	1993년 이후 대학교육 개혁 1999년의 985공정, 211공정 실시 江澤民 三個代表 국내에서 국외로, 세계화 탈이념 무한경쟁 진입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엑스포	胡錦濤 調和社會 대학 모집생 증가, 고등교육 확대, 민영화 확대, 대학 경제 발전 세계화와 개혁개방 가속	

중국 대학은 이상의 주요 사건을 기초로 변화·발전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중국 대학의 변화는 정치노선과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크게 동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대학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학의 사상적 기초로 작용한 것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고유의 사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외래사상으로 볼 수 있다. 사상과 문화의 변천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접촉하며 변화한다. 이것은 변증법적 발전과정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신체호의 역사 발전관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고유의 사상을 전통사상으로 묶고, 외래사상을 중국의 특성상 외래사상과 사회주의사상으로 구분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3. 중국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1) 전통사상 - 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수천 년 역사 동안 중국인들의 내부에 존재했던 전통사상은 다양한 형태로 중국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학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전통사상이 유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이견을 달기는 쉽지 않다. 유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은 유가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사상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유가 사상은 漢代 이후 중국을 다스리는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뒤, 오랫동안 중국의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과거 시험에서 유가 경전이 채택되고 난 뒤에는 유가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물론 1905년 과거제도의 폐지와 근대 대학의 설립으로 유가의 영향력은 예전같지 않지만, 유가는 중국인들의 오랜 전통과 밀착되어 중국 대학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사상은 척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외래사상의 수용을 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정치권력에 흡수되어 새로운 권력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유가 사상의 현실 강조적인 측면은 중국인들의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되었고, 禮를 중시하는 것은 형식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불어 知를 중시하는 풍조는 교육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대학의 사회적 지위

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또한 ‘和而不同’처럼 조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 사회와 중국 대학의 다양성을 유지시켰다. 전통사상이 중국 대학에 계승된 형태에 근거하여, 그대로 계승된 경우와 중국 대학의 상황에 맞게 변화·계승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이 그대로 계승된 경우이다. 중국 대학의 변화에서 유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은 중국 대학의 존재와는 대척점에 주로 있었다. 중국 대학의 설립에서 중국 대학은 외래문화와 현대 문명에 맞서 자신의 전통을 형식적으로나마 계승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 유가 경전 중심의 교과과정과 전통과목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특히 이것은 중화민국 건국 후, 1912년 1월 19일에 발표한 <普通教育暫行辦法>, <普通教育辦行課程標準> 등을 통해 청말까지 지속되었던 관행들을 폐지하며 종결되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청조의 교과서와 經學科를 폐지하였고 1912년 3월 8일에는 <大清會典>, <大清律例> 등을 폐지하면서 민국정신에 위배되는 청나라 관련 서적을 제재하였다. 또한 봉건 사회의 엄격한 신분질서와 과거를 통한 신분 상승의 방법이 과거 제도가 폐지된 뒤에 전과 다른 형태로 남아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을 과거시험과 같은 신분 상승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시종을 동반하여 공부했던 북경대학의 개혁 전 모습이 그러하다. 나아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대학 내에서도 전개 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청화대학의 ‘국학연구원’이다. 국학연구원은 청화대학 대학부와 동시에 개원하였는데, 개원 이후 胡適, 梁啓超, 王國維, 陳寅恪, 趙元任 등이 연구에 종사하면서 국학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27년 王國維가 사망하고, 梁啓超 등이 연구원을 떠나면서 1929년에 문을 닫았다. 국학연구원은 미국 유학생을 주로 배출하고 관리하던 청화대학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중국의 전통문화를 연구하여 중국과 서양의 소통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실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지식인 개인에게서도 일어났다. 예를 들어 康有爲는 공자 사상을 재해석하여 변법운동을 이끌었고, 曾國藩은 유교적 가치관을 내세워 湘軍을 조직하여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려 하였다. 이들

모두 유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으로 중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서구식 대학이 중국에 전파되고 난 뒤, 전통사상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급기야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타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사상 가운데 일부 부조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것들에 제한될 뿐, 모든 전통사상이 타도의 대상은 아니었다.

둘째, 유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이 중국 대학의 상황에 맞게 계승된 경우이다. 전통사상이 중국 대학의 상황에 맞게 진행된 것은 전통사상의 창조적 계승이다. 대학 사회는 이러한 계승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논쟁을 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20년대 있었던 東西文化論爭이다. 梁漱溟과 新文化派가 논쟁을 벌이는데, 新文化派는 고대에는 동방문명이 우세했고, 근대에는 서구 문명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반면, 梁漱溟은 동서문화 유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통사상을 이용하여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시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梁漱溟을 비롯하여 熊十力, 賀麟, 馮友蘭 등이 시도하였다. 이들은 서구 사상을 수용하여 유가 사상을 개조하려 하였다. 북경대학의 馮友蘭은 朱熹의 理개념과 현대의 논리적 분석을 이용하여 新理學을 선보였다. 과거 梁啓超는 중국의 유교를 보존함으로써 중국을 보호하는 쪽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康有爲와 협력하여 유교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張岱年은 자신의 형인 張申府의 영향을 받아 중국철학에서 유물론적인 전통을 연구하였다. 張申府는 당시 중국이 고민하던 문화문제를 변증법적 유물론과 분석적 방법에 중국철학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전통사상에 근거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것은 현대화 과정 속에서 중국 전통문화를 융해시키려 했던 북경대학 철학과와 湯一介와 중국 사회과학원의 李澤厚와 龐朴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을 文化書院派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송명 성리학을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으로 여기면서, 중국문화의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통사상의 생산적 발전에 대한 시도는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未完의 과제다. 발전 과정 속에서

결코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가 살아있는 전통사상을 버릴 수 없고, 수 천년 내려온 전통사상 가운데 현시대와 맞는 것을 발굴 개발한 기초 위에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통사상은 궁극적으로 중국 정치체제의 근간인 사회주의사상 및 외래사상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중국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중국 경제의 발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성숙, 중국식 대학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蔡元培가 주도 하였던 대학교육 개혁에서도, 蔡元培 자신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전통사상, 특히 유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의 방법을 중국 대학에 이식시켰음을 알 수 있다. 蔡元培가 경사대학을 잇는 중국 국립대학인 북경대학을 대표하고 유럽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다면, 이와 반대로 梅貽琦는 교회대학으로 미국 유학 예비학교였던 칭화대학의 3대~6대 총장을 지내면서 칭화대학을 대표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 그 역시도 근대 대학교육의 종지를 《大學》에서 말하는 “在明明德，在新民，在止於至善”에서 찾았고,⁴⁾ 이에 칭화대학의 학생 기숙사 이름을 “明齋”，“新齋”，“善齋”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그가 “대학이란 大樓가 아니라 大師이다”라고 말한 “大師說”역시 孟子가 논한 “故國者”에서 기원한 말이다.⁵⁾ 근대에 중국을 이끌었던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남개대학교, 서남연합대학 등은 동양과 서양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 이러한 대학은 《論語·衛靈公》에 “人能弘道，非道弘人”라는 정신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래서 季羨林은 북경대학의 정신을 ‘士’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⁶⁾

전통사상이 중국 대학의 상황에 맞게 계승된 경우 주로 긍정적으로 계승된 경우만 생각하게 되지만, 부정적으로 계승된 경우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문화를 한때 부정적관계로 해석하였던 시각과 흡사하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毛澤東의 사상이 심층적 구조 및 사상적 측면에서 유가문화와 비슷하다며, 마르크스주의의 ‘儒家化’라고 주장하

4) 劉克選·方明東, 《北大與清華》(上)(M)(北京: 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224쪽.

5) 《孟子·梁惠王下》에서 유서 깊은 나라(故國者)는 큰 나무가 무성히 자라는 나라가 아니라, 대를 이어오는 훌륭한 신화가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6) 李憲瑜, 《北大續紛一百年(C)》(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347-348쪽.

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전통의 왜곡이 현시대를 또 다른 봉건왕조시대로 착각하게 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毛澤東의 위엄,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주도형 대학발전 등을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소수 정치 권력자의 이데올로기는 대학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인정하는 레닌의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엔 오랜 봉건왕조와 유가의 王道政治(聖君政治)에 대한 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중국 대학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최근엔 비약적인 발전도 이루었다. 물론 방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맡기고, 현재로서는 전통사상의 계승을 보다 가치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구소련이나 동유럽과 달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중국 대학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孔子學院은 전통의 또 다른 계승 방안이다.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시작한 孔子學院은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가 50년 동안 128개,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이 70년 동안 230개,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120년 동안 1110개의 문화원을 개설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孔子學院은 2009년 4월까지 81개 국가에 324개가 설립되었고, 한국에는 2004년 11월 서울에 처음 개설되었다. 궁극적으로, 중국 대학의 발전과 전통사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자세가 대학과 대학사회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2) 외래사상

근대 이후 서양의 문물과 함께 전파된 상품경제는 중국에서 수 천년 동안

지속되었던 농업중심의 자급자족 경제를 흔들었다. 그리고 제국주의 사상을 비롯하여 기독교 사상, 자유, 과학, 민주 사상 및 사회주의사상은 중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외래사상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전통사상과는 너무나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유가 사상과 봉건통치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반면에 중국 대학에 변화를 가져온 외래사상은 중국 최초의 대학 설립과 관련된 기독교 사상과 서구의 선진 사상, 이후 중국 대학 개혁의 불씨로 작용하였던 자유, 민주, 과학 사상, 그리고 대학의 변혁을 위해 끊임없이 선진국가의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들어왔던 일본, 소련, 미국, 유럽 등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개혁개방과 그 이후에 발생한 WTO가입 올림픽 개최 등을 통하여 전파된 외래사상 등이다. 이처럼 중국 사회와 중국 대학에는 외래사상이 끊임없이 전파되었는데, 중국 대학의 변화와 관련하여 외래사상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대학을 중심으로 전파된 외래사상이다. 교회대학은 외래사상의 직접적인 통로였다. 당시 중국의 사상은 주로 청왕조의 몰락과 이에 따라 파생된 중국의 무능함에 대한 반작용, 외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서구 문화에 대한 자각, 봉건왕조체제에 대한 반성 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중국인이 세운 대학도 생겨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외국 대학의 형태를 단순하게 그대로 적용한 경우여서, 수준은 서구 열강이 후원하던 교회대학 보다는 못했다. 이에 비해 교회대학은 비교적 충분한 재정적 후원이 있었고, 서구 열강의 비호를 받고 있어 정치적 동란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교회대학은 강의를 주로 영어로 진행했기에 학생들의 영어 수준과 서구 문명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 그리고 교회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중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류층 자제들이었기에 이들이 배운 서양의 외래사상은 중국 사회에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외래사상은 교회학교나 교회대학을 통해 중국에 직접 전파되기도 했지만, 이곳을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제거하면서 중국의 풍속과 상황에 맞게 전달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농업

중심인 중국의 상황에 맞춰 金陵大學에서 중국 최초로 1914년에 농학과, 1916년에 농림학과가 설립되었다. 燕京大學의 사회학과에서는 서양학문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중국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중국 사회의 발전과 서양학문의 중국화에 기여하였다. 1927년에는 燕京, 金陵, 東吳大學 등이 종교 과정과 성경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25년에서 1926년 사이의 자료를 보면 중국인 교사의 비율이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또한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도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를 차별하지 않았다. 비록 교회대학이 서구열강의 보호 속에 뿌리를 내렸지만, 외래사상을 중국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전파하고 토착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둘째, 중국 대학 개혁의 불씨로 작용하였던 자유, 민주, 과학 사상이다. 외래사상과 문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첫 번째 단계로 서양의 물질문명을 배우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양무운동), 곧이어 제도와 법률까지도 배워야 하겠다는 필요를 느꼈고(변법 유신운동), 5·4시기에 이르러 서양의 과학 기술과 제도는 물론 철학·윤리·문학·예술 등 모든 분야를 배워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하게 되었다.⁷⁾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대학이 있었고, 대학은 외래사상의 창구이자 창고였다. 근대 대학의 설립은 1845년에 세워진 崇信학교, 1879년에 세워진 聖約翰서원, 1888년에 세워진 匯文서원 등에서 기원한다. 물론 외래사상의 수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하고,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천주교를 전파하면서부터다. 이를 이어 清代에는 선교사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신앙과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것은 서구열강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교회대학이 중국 사회 곳곳에 세워질 무렵에 보다 심화되었다. 또한, 서양의 책들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던 지식인과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서양의 문화와 사상이 전파되었다. 예를 들어, 嚴復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던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양의 다양한 사상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그는 토마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번역한 《天演論》을 비롯하여 밀의 논리학의 체계를 번역한 《名學》, 스펜서의 사회학 연구를 번역

7) 신승하, 《중국현대사》(서울: 대명출판사, 1993), 137쪽.

한 《群學肆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번역한 《原富》,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번역한 《法意》 등으로 중국 사회에 서양의 과학과 민주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번역물 외에 잡지 등을 통해 외래사상이 전해지기도 했다. 陳獨秀가 발행한 《신청년》은 다양한 외래사상을 중국에 소개했는데, 특히 '과학'과 '민주'를 중국 사회에 전파했다. 대체로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은 과학을 중시 여겼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1915년 상해에서 中國科學社가 결성되었고, 세계 과학의 흐름을 소개하는 《과학》잡지가 창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과 민주는 5·4운동의 중요한 사상이 되었다. 특히, 서양에서 공부하고 온 蔡元培의 경우는 서구의 자유와 민주 사상을 유가적 전통사상과 연결하여 중국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였다. 학문적으로도 유가사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공부한 서양철학에 대한 지식을 미학과 종교, 윤리학 등의 방면에서 발산하였다. 또한 외래사상은 외국인들의 중국방문에 따라 직접 전파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19년에 John Dewey가 중국을 방문하여 2년 넘게 체류하면서 그의 제자 및 교육계 관계자들과 교류를 가졌고, 1920년에는 영국의 Bertrand Russell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경대 등에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특강과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서구의 사상을 전파했다. 듀이의 제자로 중국 대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는 남경고등사범학교의 총장이었던 郭秉文과 陶行知 등이 있다. 이처럼 민주, 과학, 자유의 외래사상은 중국 대학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중국 대학은 남성과 여성,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평등교육을 이루었다. 그리고 다양한 배움의 방식을 전파하고 기술과 과학을 중시하며 대량교육 등을 중국 사회에 실현시켰다.

셋째, 대학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들어왔던 문화와 사상이다. 서구식 대학이 중국에 들어온 뒤, 교회대학이 대학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서구 열강의 선진문화와 사상을 들여왔다. 또한 청말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거의 대부분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참고한데 반해, 1912년 7월 교육부 장관인 蔡元培의 <전국 임시교육회의 개회사>를 보면 민국초

기에 서양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사회학, 윤리학, 미학, 종교학, 정당사 등을 개설하여 서구 자본주의 문화와 지식을 흡수하였다.⁸⁾ 그리고 대학 관계법을 제정하던民国시기에는 서구 선진국 대학의 대학 관계법을 벤치마킹하였다. 예를 들어 남경임시정부에서 교육 법제를 제정할 때에도 미국의 교육 법제를 주로 참고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뒤,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토대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소련식 고등교육체제를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는 통합적 관리를 시도하였고, 소련의 고등교육기관에 기초하여 대학을 종합대학과 독립학원(또는 전문학교)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비교적 충분히 공급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49년의 대학생 수는 11만 7,000명이었는데, 이것이 1957년에 이르러 44만 1000명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⁹⁾ 이처럼 중국 대학은 외래사상뿐만 아니라, 선진 대학의 형태를 수용하여 중국 대학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90년대 이후의 대학합병으로 이어지는 미국식 교육제도의 모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모방에 그쳤고, 때론 院係조정과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중국 대학은 세계 일류 대학과 수준 높은 연구형 대학을 건설하려는 목표로 국가차원의 지원 아래 211공정이나 985공정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특색사회주의처럼 중국식 대학발전방안으로 행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세계화에 발맞추어 중국식 대학 발전 방법으로 성공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외래사상은 중국 대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첫째 둘째의 경우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외래사상이 전파되어 중국 대학과 사회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국과의 왕래와 고급 정보의 유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셋

8) 金德三, <民國時期 高等教育的 變化와 意義>(《교육문제연구》 33집, 2009), 141쪽.

9) 國家教育委員會, 《中國教育年鑒(1949-1981)》(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92), 80쪽.

제의 경우는 이데올로기가 중시되었던 시기와 국가간 경쟁이 심화된 시기여서, 외래사상 수용에서 차지하는 대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외래사상과 외래문화는 대학과 기업, 국가와 사회가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대학은 과거 중국 대학의 외래사상 수용에서 본 것처럼 폐쇄적 자세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방적 수용의 자세를 견지해야한다. 그리고 중국의 강한 포용력과 융합의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여 다양한 외래문화를 소화하고, 이것이 또 다른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경우는 많았지만, 근대이후 현재까지의 대학 발전사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대학은 중국전통사상의 장점과 외래사상의 장점을 조화시킬 출구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 더불어 1952년 원계조정으로 해체된 교회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문체도 중국이 외래사상을 원만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것을 자국이익과 서구열강에 대한 부정적 감정만으로 덮고 넘어가기보다는 중국 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진취적인 자세로 풀어야 한다.

(3) 사회주의사상

사회주의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다른 것이고, 사회주의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도 다른 것이며, 사회주의사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도 다르다. Franz Schurman의 지적처럼 순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인 이론(Theory)에 속하는 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이고,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인 사상(Thought)에 속하는 것이 毛澤東 사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¹⁰⁾ 또한 만능리적 용법이라고 비난 받기도 하지만, 공산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낮은 공산주의의 제1단계를 지칭할 수도 있

10) Franz Schurma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California Univ. press, 1968), 18-25쪽.

다.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자신들의 경험을 보태어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의 전개 편의상 사회주의사상이라고 통일해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상이 중국 대학에 미친 영향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중심으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여기에서는 건국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다.

첫째, 건국 이전에 사회주의사상이 중국 대학에 미친 영향이다. 사회주의사상이 중국에 전파될 무렵, 중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유학을 갔다. 그리고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도 중국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1917년에 러시아에선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당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희망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18년 11월 북경대학에 처음으로 마르크스 연구회가 설립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마르크스-엔겔스 사상과 관련한 인물들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대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의 문과대 학장을 맡은 陳獨秀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던 李大釗가 그 경우다. 이들은 일본 유학파로서 중국 공산당 창립에 많이 기여하였다. 특히, 1918년 10월부터 1919년 3월까지 북경대 도서관에서 보조 관리원을 역임했던 毛澤東은 李大釗와 陳獨秀로부터 마르크스 사상을 접했다. 李大釗의 영향으로 마르크스 관련 서적이 북경대 도서관에 놓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과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1921년에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지만, 1926년까지 그 존재가 미미하여 특별한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공산당원들은 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사상을 정립하고 있었다. 그 후 중국 공산당은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의 붕괴를 거쳐, 1931년 11월 江西 瑞金을 수도로 하고, 毛澤東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1934년 11월에 서금이 함락되어, 이를 피해 長征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5년 11월에는 延安을 혁명근거지로 삼게 되었다. 延安시기에는 공산당이 주도하여 대학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사상이 대학에 직접 영향을 미쳤지만, 일반 대학에 비하여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당시에 운영되었던 학교로는 華北聯合大學, 抗日軍政大學, 中國女子大學, 延安大學과 中央黨校, 自然科學院, 軍事學院, 民族學院 등이 있었다. 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교육 사업은 정권쟁취의 혁명 투쟁에 목적을 두고, 봉건교육에 반대하며, 제국주의 문화침략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학교에 반대하였다.¹¹⁾ 그러므로 대학으로서의 순수한 학문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건국 이후 사회주의사상이 중국 대학에 미친 영향이다. 사회주의사상은 건국 이전과 달리 중국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국이후에는 毛澤東을 주축으로 하여 사회주의사상의 중국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毛澤東은 '절대적'일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 마르크스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 공산주의자에게 유효한 것은 오직 구체적 마르크스주의 즉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뿐인 것으로 생각했다.¹²⁾ 毛澤東은 이처럼 사회주의를 중국식으로 해석하려 하였지만, 이것은 집권세력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악용되기만 했다. 그리고 마르크시즘의 계급 투쟁관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대립하는 구도로 바라보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예를 들어, 건국 이후 행하여졌던 수많은 지식인들에 대한 숙청과 사상개조 작업이 그러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최대의 사건은 바로 문화대혁명이었다. 이후, 사회주의는 등소평의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사회주의 건설로 보다 구체화 되면서, 중국의 현실과 중국적 상황에 맞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83년에 '세 가지 나아갈 방향(三個面向)'을 발표하면서, 과거 이데올로기에 휘둘렸던 교육을 뒤로하고 "교육은 현대화를 지향하고, 세계를 향하고, 미래를 향한다"고 선포하였다. 물론 이후에 천안문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江澤民과 胡錦濤로 이어지는 중국의 정치권력은 세계의 흐름과 시대적 조류를 함께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인도

11) 高奇, 《中國高等教育思想史》(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2), 289-290쪽.

12) 송영배, 《유교적 전통과 중국혁명》(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381쪽.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에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천명한 것에 발맞춰 1993년에는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강요>를 발표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 교육체제를 전환하였다.¹³⁾ 1999년 6월에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주관한 '제3차 전국 교육 사업회 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소질 교육에 관해 교육개혁을 심화시키자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을 통하여 교육개혁의 심화, 전면적인 소질개혁의 추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과학교육으로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실행하기위해, 건실한 인재를 배양하려는 하나의 실천 방안이다.¹⁴⁾ 게다가 2002년에 <民辦教育促進法>을 채택하면서 사립대학의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 건국이후에는 사회주의사상이 직접적으로 전국의 대학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사상 교과목이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 이론', '사상정치교육' 등의 교과목이 그러하다. 이것은 주로 정치교육이나 사상정치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대학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사상을 교육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이념의 후계자 양성에 치중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개혁개방이전까지 정치 이데올로기가 팽배하였던 사회로서,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목표로 다양한 정치 교육을 중국 대학에서 진행하면서, 대학에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 이론과 충돌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제도가 유입되면서 사상적으로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21세기 이후에는 사상정치교육에서 公民教育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공민교육은 기존 정치교육의 낙후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현실에 맞춰 진행한 것뿐이지, 중국의 가치와 체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에서 중국식으로 승화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시장

13) 대학의 통폐합을 고등교육의 시장화란 각도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경자,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학의 구조조정>(<中國研究> 46권, 2009), 497-499쪽.

14)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中共中央國務院關於深化教育改革, 全面推進素質教育的決定>(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文獻資料, 1999).

경제와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보충한 것이다. 더 나아가 2004년 8월 <關於進一步加強和改進大學生思想政治教育的意見>을 중공중앙과 국무원 이름으로 공포하면서, 사상정치교육을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건이 사회와 시대의 변화와 대학생들의 새로운 의식을 반영한다고 해도 중국의 체제를 부정하면서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산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안정적 지배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중국에 전파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기가 지나면서, 이념보다는 현실, 대립과 투쟁보다는 사회적 조화가 중시되고 있다. 사실 이론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반대로 적용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변형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것인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중국에 마르크스-레닌을 소개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뿌리내린李大釗의 경우도 평자에 따라 사회주의사상을 중국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파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즉, 본질적으로 중국의 전통적 사고에 뿌리내리고 있는李大釗은 유가적 도가적 사유를 새롭게 해석 할 수 있었음으로 해서 당대의 '복고적 보수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외래의' 사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독특한 독립적인 사상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¹⁵⁾ 郭沫若의 경우도 <마르크스와 공자와의 대화>를 통해, 두 사상이 서로 다를지라도 바로 '현세'의 '삶'에서 '公共의 복지'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다.¹⁶⁾ 사회주의의 중국적 수용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중국이라는 현실에 적용하면서 이론과 실천사이의 간극을 매우기위한 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비록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때는 지나갔지만, 중국 사회는 아직도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줄 사상, 이념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국가 발전을 결정하는 원동력이고,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

15) 송영배, 앞의 책, 347쪽.

16) 위의 책, 379쪽.

한 수단이다. 그러나 중국 대학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중국 대학은 대학의 자체적 역량에 의해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보다,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소수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국가의 영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때론 대학을 위기에 빠지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주의가 중국 사회에 맞게 변형되어 가는 것처럼, 대학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 대학 자체의 자율성과 자생력, 개방과 소통의 역량을 키우고 보장하면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나오는 말

대학 변화의 動因, 그 가운데 사상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대학은 무엇보다도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러한 사상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본고에서는 근대 중국 대학의 시작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대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상을 사상적 기초라는 명목아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상호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대학의 사상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사상적 영향에 의해 고등교육이 변화되었고, 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상과 고등교육변화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전통 교육방식은 봉건왕조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전통교육을 이끌던 사상적 기초는 유가를 중심으로 한 봉건적 사상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에 서구의 교육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 교육과 중국 대학에는 다양한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에 중국의 대학은 과학, 민주, 자유와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표류하였고, 산업화 시기에는 현장에 필요한 인력

을 공급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식을 주입식으로 암기시키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상이 생겨났다. 21세기 초의 대학교육은 국제화, 대중화, 사학화, 평생교육 등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경제와 더불어 정보화에 힘입은 지식경제의 대두로 대학교육은 전면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이 되면 지식의 양이 73일을 주기로 두 배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원하는 시기에 공부하게 되어 학교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창의적 인재의 필요에 따라 교육 형태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어떠한 사상으로 대학의 기능을 유지할 것인가? 지식과 창조가 강조되는 시대에 대학은 두 가지 방향의 것이 공존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하나는 지식과 실력을 추구하는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인성에 바탕을 둔 전인교육에 치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중국 대학의 사상적 기초는 앞서 살펴본 큰 틀을 유지할 것이다. 즉, 전통사상의 재해석과 끝없는 외래사상의 창조적 수용,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정신인 사회주의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과거 중국 대학은 전통사상, 외래사상, 사회주의사상 등을 기초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과 정치 지도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변화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도 중국 대학의 변화는 단독으로 일어나기보다, 다양한 사상의 융복합적 연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 공산당 제 17차 당대회에서 胡錦濤 총서기는 중국의 문화 소프트 파워(軟實力)를 강조하였는데, 그가 강조한 문화의 소프트 파워도 중국의 전통사상을 머리로 하고, 외래사상을 자양분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몸통으로 하여 도출된 것이다. 비록 그가 과거 어느 정치인보다 以人爲本, 親民, 和諧社會, 和諧世界, 平和發展 등과 같은 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였고, 세계화와 국제 경쟁의 환경에 따른 외래사상의 적극적 수용과 전통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타파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재발견에서 나온 해결책에 불과하다.

중국 대학 발전도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상적 기초가 융·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전통교육의 명예를 되살리고 세계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국 대학의 발전과 변화에 있어 전통사상, 외래사상 및 사회주의사상은 사상적 기초로서 과거처럼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전통사상은 중국 정신의 근간으로서 머리역할을 할 것이고, 외래사상은 중국 대학의 발전을 지속시킬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사상은 중국체제의 근간으로서 몸통역할을 하며 중국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사상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계승 속에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외래사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수용을 위해, 실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사상은 그 집행에 있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근본적 가치를 잃지 말고, 이념보다는 현실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모델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高奇, 《中國高等教育思想史》,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2.
- 高時良, 《中國教育史綱》,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93.
- 曲士培, 《中國大學教育發展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 國家教育委員會, 《中國教育年鑒(1949-1981)》,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92.
- 金德三, <民國時期 高等教育的 變化와 意義>, 《교육문제연구》 33집, 2009.
- 能明安 主編, 《中國近現代教育改革史》, 重慶: 重慶出版社, 1999.
- 潘懋元 主編, 《中國高等教育百年》, 中國: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5.
- 王冀生, 《大學理念在中國》,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7.
- 劉克選, 方明東, 《北大與清華》(上)(M), 北京: 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8.
- 劉兆偉趙偉, 《中國教育法制史》, 中國: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 송영배, 《유교적 전통과 중국혁명》,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 신승하, 《중국현대사》, 서울: 대명출판사, 1993.
- 李均, 《中國高等教育研究史》,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5.

- 이경자,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학의 구조조정>, 《중국연구》 46권, 2009.
- 李憲瑜, 《北大繽紛一百年[C]》,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蘇曉環, 《中國教育 改革與創新》, 中國: 五洲傳播出版社, 2002.
- 天兒慧 저, 임상범 역,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서울: 일조각, 2003.
- Franz Schurma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California Univ. press, 1968.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中共中央國務院關於深化教育改革, 面推進素質教育的決定>,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文獻資料, 1999.
- <http://www.moe.edu.cn/edoas/website18/info3318.htm>

< 中文提要 >

本研究意在探求中國近現代大學的變化及其思想的變化。爲此, 要把給中國大學的變化帶來影響的思想命名爲“思想的基礎”, 并把中國大學的主要變化分成了6個部分。還有, 以此爲基礎, 將具有最大影響的思想基礎分爲以儒家爲基礎的傳統思想、外來思想以及社會主義思想。

首先, 傳統思想是根據中國大學的繼承形態分成了自然繼承和按照中國大學的情況繼承的兩個部分。其次, 外來思想主要是分爲以教會大學爲中心傳播的樣相和自由、民主、科學思想等。最後, 社會主義思想分爲建國前和建國後的兩個部分。

通過本研究可以了解中國的大學如何繼承自身的傳統, 其外來思想是如何引導中國大學的變化, 此外, 社會主義思想給中國的大學帶來了何種變化等問題。相信以此爲基礎, 將更準確的了解中國大學的今天和未來。

關鍵詞: 近現代大學 傳統思想 外來思想 社會主義思想 中國大學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9.30	2010.10.30	2010.11.6	2010.11.8	2010.11.30